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드리는 열세 번째 “영상택배” 안내



지난 주 보내드린 송잔나 교수의 “러시아 고려인의 형성과정과 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한 온라인 문화강좌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일본평론사 오이시 스스무 회장이 진행하는 “인권변호사 후세 다쓰지와 조선”을 주제로 한 강연을 보내드립니다. 통역은 전주대 이상균 교수께서 진행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세느강은 파리를 동서로 나눈다(3)

- 파리의 서쪽, 카페 산책 1 -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에펠탑에서 내려다 본 파리 시내, 가운데 보이는 천(川)이 세느강이다. 따라서 좌측은 東, 우측은 西.



동쪽 멀리 보이는 몽마르트 언덕, 왼쪽 황금돔과 오른쪽 검정 건물(몽파르나스) 그 사이에 카페촌이 들어 있다.

세느강에 의해 동서로 나뉜 파리는 지난 호에서 말한대로 동쪽의 몽마르트 주변은 예술과 향락의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서쪽 몽파르나스 지역과 생제르맹 대로(大路) 주변은 대화와 담론이 오가는 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서쪽은 교양적(?)인 곳이라도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동쪽은 향락적이라 불순한 지역이라며 동쪽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서로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아무튼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는 세느 서쪽 지역을 소개한다. 서쪽의 몽파르나스 지역과 생제르맹 주변은 카페촌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파리의 카페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찻집, 커피 샵 정도가 아닌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카페는 원래 살롱(Salon)에서 변화되었다. 살롱은 원래 객실, 응접실, 미술전람회 등의 뜻이 담겨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살롱**은 1667년 루이 14세가 미술가들의 작품을 후원하였는데, 그 전람회가 파리에 있는 루브르궁의 아폴로 살롱에서 열린 것에서 살롱이라는 명칭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궁정과 귀족의 저택을 무대로 한 사교계 모임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창기 한때는 살롱 출입이 귀족들에게만 허용된 적도 있다.

이 지역에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카페 프로코프가 있다. 파리 카페의 원조인 이곳은 1686년에 오픈한 이래 시인, 문인들 그리고 특히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 당대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이들 지성인들은 단순히 모여 커피나 마시고 잡담만 하는 게 아니었다. 사회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였다. 그들은 물론 들어 내놓고 직접적으로 사회를 비평하기도 하였지만 은밀하게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말하자면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뒤에는 이들 지성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 1894년에 생긴 드레퓌시 사건에서 보여준 에밀 졸라의 위험을 무릅쓴 태도이다. 드레퓌시 사건이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시가 국가의 기밀문서를 타국에 팔았다는 것으로 반역죄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다. 온 국민이 드레퓌시를 단두대로 보내라고 아우성일 때 에밀 졸라는 개인적으로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고 그의 누명을 벗겨주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에밀 졸라는 그 사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연구한 후 파리의 신문 「로로르」지에 “나는 고발 한다”는 제목으로 드레퓌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이는 사실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에밀 졸라는 주저하지 않았다. 역시 그는 예상한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국으로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러한 지성인의 양심적 행동에 힘입어 드레퓌시는 수년 후에 무죄가 증명되었다.



생 제르맹 데 프레교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카페는 파리 지성인들의 사상 담론의 산실로 파리에서 찾아가봐야 할 유서 깊은 장소라 할 수 있다. 이곳을 가려면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곳에는 파리에 제일 오래된 “생 제르맹 데 프레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1500년 된 이 교회가 유명하다는 것은 이교회 바로 옆에 생제르맹 데 프레라는 이름의 지하철역이 있고 지상의 큰길 역시 이름이 같을 정도이다. 이 교회 일대가 카페촌이다. 골목골목에 유명한 카페들이 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일곱 번째 이야기 “마애석불과 석간수”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묘적암으로 오르는 숲길 | 흐르는 세월이 추웠을까? 공덕산은 푸른 거목들을 옷 삼아서 잔뜩 껴 입었다.

윤필암에서 묘적암까지는 500m가량의 짧은 거리지만, 비탈길이 꽤 가파르다. 그러나 주변의 울창한 숲으로 인해 산길을 걷는 묘미가 나름대로 있다. 녹색의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기분이 들 만큼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겨운 노래 한 가락이 새어 나온다.

이곳의 숲은 아주 건강하다. 오랜 세월 뽕뽕이 자란 교목들이 하늘을 찌르는데, 관목들은 그 기세에 치었는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수풀 안으로 들어가 봄에, 그저 야트막하게 자란 풀포기들만 그루터기 사이를 맴돈다.

뜨거운 한낮이 지루하고 따분해서일까? 다람쥐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 지나는 길손들을 맞는다. 나뭇가지에서는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려온다. 신록의 5월 하루가 싱싱하게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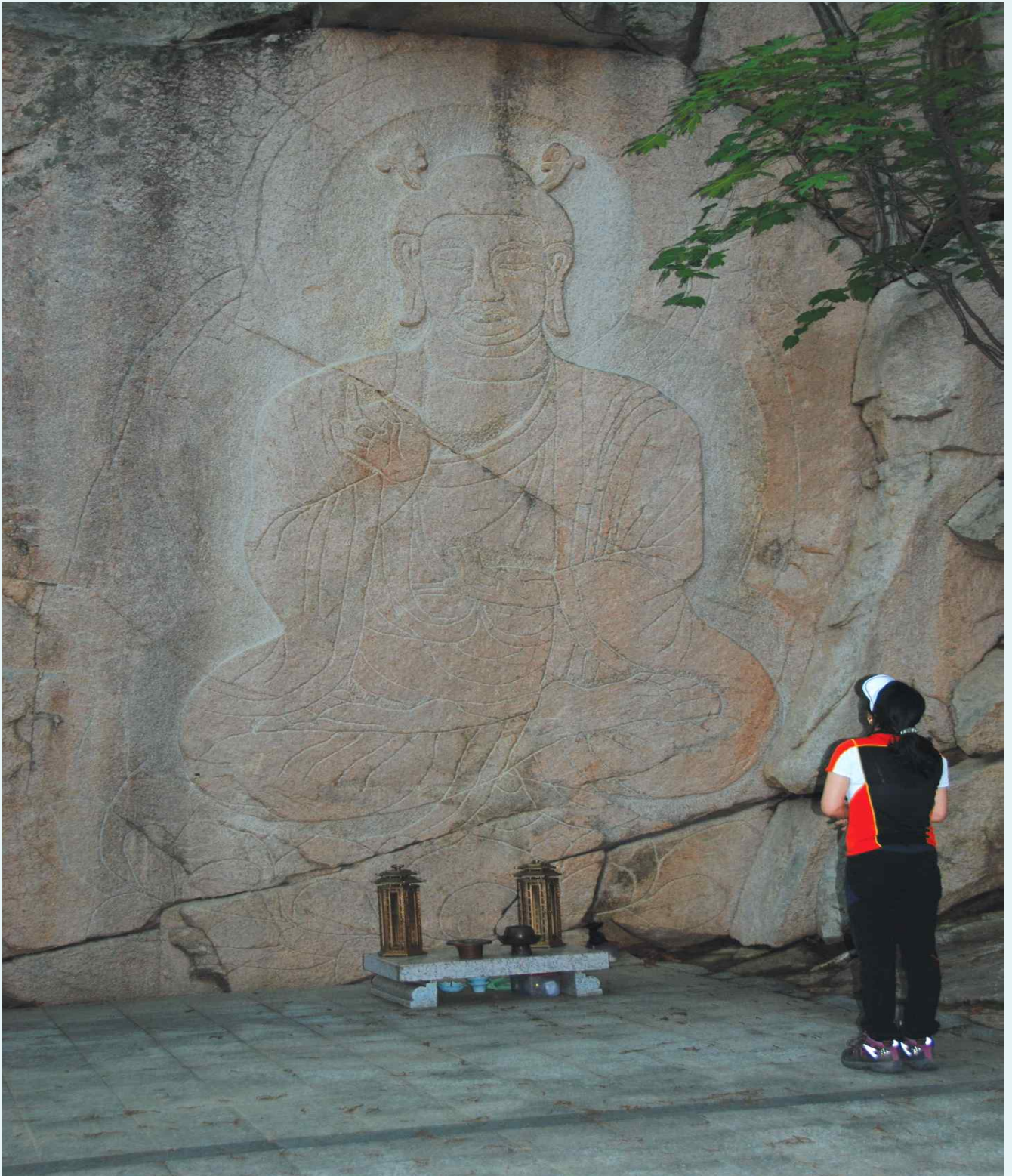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계단 하나를 우측에서 만난다. 계단 끝에 제법 널따란 평지가 열렸고, 북쪽으로 기댄 수직의 암벽에서는 거대한 마애석불이 나타난다. 나옹화상이 직접 새겼다는 전설의 마애불이다. 마애불 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판이 섰다.

이 불상은 대승사로부터 약 2km 떨어진 윤필암과 묘적암 중간 길가의 암벽에 조각되어 있다.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음각된 이 불상은 이중二重 연화좌대蓮華座臺 위에 신광身光과 두광頭光을 조각하였으며, 양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손은 위로 올려 진리를 나타내는 손 모양을 하고 왼손은 복부에 놓았다. 머리 부분은 소발素髮이며, 살상투는 편평하며, 그 양편에 두 뿔처럼 연꽃 무늬를 조각한 것이 특이하다. 불상의 전체 높이는 6m, 어깨 폭 2.2m로서 조각 수법으로 보아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개를 바짝 들어야 하니, 마애불은 무려 6m의 높이란다. 안내문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개의 뿔 모양으로 새겨진 생소한 무늬는 연꽃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마치 영지버섯처럼 보인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마애불의 상호는 우뚝한 코에 두툼한 입술로, 후덕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풍겨난다. 눈덩이도 두툼하게 묘사되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분명하다. 단순한 선으로 음각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선뜻 다가선 부처님의 형상이다. 우리 민족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

누구인가? 6m나 되는 저 높은 바위에 부처님을 새긴 사람은. 분명 그는 자신이 지닌 열정과 땀을 저 바위 표면에 모두 쏟아부었으리라. 그 정성에 감복한 부처님께서 어느 날 무겁고 답답한 바위 옷을 훌훌 벗어 버리고, 바위 위에 저토록 시원스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리라.



마애불 | 오가는 사람 없어 심산유곡이 비록 적막해도, 마애불은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세로 하루해를 보낸다.

다시 계단에서 내려와 급한 경사를 오르다가, 길가의 오른쪽에서 샘물 하나를 만난다. 마침 묘적암의 주지스님이 한가로이 물을 길고 있는 중이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둔산의 태고사에서 얼마전 이곳으로 오셨단다. 청수한 기운이 맴도는 수행자의 얼굴이다.

이 샘물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바위지붕 아래의 돌 틈에서 나온다. 지금은 대리석으로 뚜껑을 닫아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달고 시원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석간수에는 나옹화상과 관련한 신비하고 재미있는 전설이 남았다.

어느 날 나옹스님이 이 샘물 가에서 공양 준비를 위해 상추를 씻고 있었다. 이때 나옹스님은 가야산 해인사에서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갑자기 상추 씻던 물을 해인사 쪽으로 뿌렸다. 이때 불길에 휩싸인 해인사에서는 북쪽 하늘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일더니, 상추 섞인 소나기가 뜬금없이 내렸다. 이윽고 불길이 잡히자, 해인사 노장 스님들은 갑작스럽게 내린 이 이상한 소나기가 틀림없이 어느 도인의 도술이라고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도인을 찾아보라고 여러 스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편 묘적암 스님들은 상추를 씻으러 갔다가 늦게 돌아온 나옹스님에게 연유를 물었다. 스님은 해인사에 난 불을 끄고 오느라 잠시 늦었노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를 믿지 못한 여러 스님들이 나옹 화상을 꾸짖자, 나옹은 실수인 척하면서 일부러 물을 방바닥에 쏟아 버렸다. 스님들이 다시 나옹을 나무라며 물을 치우라고하자, 나옹은 스님들이 보는 앞에서 방바닥에 흩어진 물방울을모아 공중에 빙빙 돌게 하더니, 마침 옆에 있던 밥주걱을 들어 물방울을 마당으로 쳐냈다. 그러자 물방울들이 마당의 작은 바위에 부딪치더니, 그 자리에‘심心’이란 글자가 새겨졌다. 이에 묘적암의 여러 스님들은 깜짝 놀라, 나옹을 법석으로 모시고 법문을 들었다고 한다. 나중에 묘적암에 들른 해인사 스님은 그때 내린 비가 나옹스님의 법력임을 알아 머리를 조아렸고, 묘적암의 다른 스님들 역시 다시금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기 어려운 전설이지만, 지금도 묘적암의 앞마당에‘심’자가 새겨진 작은 바윗돌 하나를 볼 수 있다.

다음 주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여덟 번째 이야기 “묘적암과 나옹화상”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